"누가복음 6장 39절~44절 강해 설교"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목사

구역예배

- 성경 : 누가복음 6장 39절~44절 강해 설교
- 찬송 : 찬송가 208장(새찬송가 289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4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9절,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인간사회에는 선생, 인도자, 지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들은 소수든 다수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안내하고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일생 동안 지도를 받거나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도자는 지도받는 자보다 그 지도하는 일에 지식과 능력이 앞서야 합니다. 지식도 없고 능력도 모자라는 사람이 지도하면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건 중의 하나는 누구의 지도를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격미달의 지도자 또는 사악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낭패를 당하고 불행의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권고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약 3:1) 하였습니다. 선생, 인도자, 지도자의 책임은 아주 중차대할 뿐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에 끼친 일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인류에게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 논리와 사상을 가르친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찰스 다윈'과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들이 가르친 진화론과 유물론적 공산주의사상이 초래한 폐단과 해악은 말로 다 형용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생물진화론을 제창(提唱)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를 모으려고 5년에 걸쳐 남아메리카와 남태평양의 여러 섬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다니며 탐사하였습니다. 그 자료들을 정리하고 연구를 거듭하여 1859년 '자연 선택에 의한 종(種)의 기원(起源)에 관하여'라는 저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책이 발간되자 당일에 매진되었고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진화론은 천지창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사람들이 마치 신화와 전설처럼 취급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신자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불신자들이 신앙을 가지는데 장애물이 되게 하는 사탄의 전략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성립될 수 없는 과학적인 이유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진화를 증명하기 위해 내세운 근거 중 하나가 화석이었습니다. 그러나 화석은 연구할수록 오히려 진화론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진화론에서는 모든 생물이 한 조상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고등한 방향으로 진화해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화석이 발견되는 두 지층 사이에는 진화과정인 중간층이 수없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학전문지인 '뉴스위크'에서 언급하기를 "과학자들이 종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형태의 전이화석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낙담하게 된다. 화석기록에는 중간형태의 전이화석이 없다는 것이 법칙이다." 하였습니다. 진화론자들은 고릴라, 오랑우탄, 긴팔원숭이, 침팬지 등의 유인원(類人猿)을 인류의 조상으로 분류합니다. 한 때는 사람으로 진화되기 직전의 유인원(類人猿)이 발굴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그 증거들은 극소수의 뼈와 이를 조립해 만든 허구로 밝혀졌습니다. 명성을 탐한 사람들의 속임수였습니다. '타임'지는 3회에 걸쳐 진화론 특집기사를 실었는데,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나온 지 100년이 넘었으나 과학적 증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최근에 확인된 화석들은 다윈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고 있다."

진화론에서 주장하듯이 모든 생물들이 진화를 계속해 오늘에 이른 것이 사실이라면 현존하는 생물들은 이미 수천만 년에서 수억 년을 경과한 생물종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모든 생물이 하나같이 진화를 멈추고 있는 것일까요? 무척추에서 척추로, 어류에서 양서류로, 양서류가 파충류로, 파충류가 조류와 포유류로, 설치류와 같은 포유류에서 유인원으로, 유인원이 사람으로 진화하는 현상이 무수히 쏟아져 나와야 하는 데 최근까지 수천 년간 왜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다윈의 진화론은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되어 멸절된다는 논리인 적자생존(適者生存)에 의한 자연선택을 주장하지만, 자연계에는 이와 반대로 약한 생물들이 더욱 번성하여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나 호랑이의 숫자는 계속 줄고 있지만 연약한 초식 동물들은 번성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이론은 초식동물이 육식동물보다 더 번성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타당성을 잃게 됩니다. 자연계에는 공생현상이 있습니다. 나비와 벌들은 꽃이 없으면 아예 존재하지 못합니다.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도 신비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의 원리는 동식물 세계에 무수히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도 창조주의 지적 설계를 암시하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의도적인 정보가 유전자 안으로 입력되지 않고서는 각종 생명체가 보여주는 본능적 행위에 대해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연어가 산란하기 위해 먼 바닷길을 헤엄쳐서 자기가 태어났던 하천으로 되돌아오는 신비를 진화론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모든 새들은 모성애를 어디서 배웠는지 자기가 품어서 낳은 새끼들이 자립할 때까지 먹이를 물어다 주며 양육합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다 자라면 둥지 밖에서 먹이로 유인해 자연에 적응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자연과학은 본질적으로 과학적 방법에 따라 사물 속에 숨어 있는 원리나 법칙을 찾아내고 실험적으로 검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누가 어디서 실험을 하든 동일한 결과가 변함없이 나올 때, 즉 재현성(再現性)이 있을 때 비로소 자연과학의 법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화론의 연구 대상인 생명의 기원이나 생물종의 다양성 문제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재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종의 종교적 신념에 불과합니다. 진화의 요인이라는 돌연변이도 진화가 아닌 퇴화의 증거일 뿐입니다.

모든 생물의 세포에 있는 유전자의 유전정보는 우연히 저절로 생겨날 수 없습니다. 물질로부터는 어떠한 정보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보는 누군가 외부에서 넣어 주어야만 합니다. 누가 그 정보를 준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확답은 성경만이 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공산주의 사상이 초래한 폐단과 해악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찰스 다윈'보다 9년 후인 1818년에 태어났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질이고 영혼, 정신,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의 작용이며 산물이다. 물질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라는 주장이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유물론 사상의 핵심이고 근원입니다.

유물론에 근거한 공산주의 사상과 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개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종교와 교회당과 신앙을 용납하면 유물론이 설 자리가 없어지므로 모두 말살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체제 국가의 지도자들은 무자비한 인권유린, 대량학살을 자행합니다. 공공연한 거짓과 선동으로 인민을 세뇌하며 노예화합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몰락하기까지 칠 십여 년 동안 공산국가에서 숙청(肅淸)이라는 이름아래 고문당하고 감금되고 처형당한 무고한 사람들의 수는 다 셀 수 없습니다.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죽음에 이르러도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연구와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거스르는 논리와 사상을 가르치는 자와 거기에 기반한 사회체제를 이끄는 지도자는 영원하고 참된 진리를 인식하는 눈이 완전히 먼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이 대중을 기만하고 미혹하여 권력을 손에 쥔 지도자가 되면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을 불행과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합니다. 더욱 기막힌 일은 마르크스의 가르침을 따라 공산국가를 건설한 소련의 정치지도자 레닌의 동상이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밧줄에 묶여 끌어내려진지 어느덧 30년이 더 지난 지금도 북한은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 하에 있고 북한 동포들은 자유를 잃고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역사의 와중에서도 1948년 8월 15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으며 훌륭한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국민이 최대한 자유를 누리면서 정치 경제 문화적 선진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에 대한 혜안(慧眼)을 지닌 지도자들이 출현하여 국민들을 가르쳐 일깨우고 이끌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획기적인 경제 부흥을 일으킨 기반 위에서 지금은 온 세계가 경이에 찬 눈으로 바라보며 괄목상대하는 지경에까지 발전하였습니다. 북한의 적화야욕에 의한 불법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적 전쟁을 치러야 했고, 무분별하거나 혹은 의도성을 가진 종북좌파들 심지어 주사파들이 날뛰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우하여 주셔서 위태로운 고비들을 극복하여 왔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고 애국하는 국민들 그리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애타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한국교회를 악법으로 통제하고 마침내 폐쇄

되도록 하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복음, 사이비 복음으로 복음을 혼잡하게 하며 또한 교회와 성직자들을 세속화하여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상실하도록 하려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더욱 깨어 기도하며 신앙의 본질을 수호하고 교회의 사명을 더욱 열심히 수행해야 합니다. 성경대로의 믿음의 기반에 서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적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신학교수와 교역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이끌면 이를 따르는 자들까지 멸망의 구덩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진화론을 주창한 다윈, 유물론적 공산주의를 만연시킨 마르크스, 사이비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지도자는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끌고 가는 범죄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는 눈먼 자들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에 대하여 눈먼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추종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종국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빠집니다. 심히 두려운 일입니다.

41절,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인식하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는 확대해석 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문책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였습니다. 아담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저와 함께 하도록 주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네가 한 이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기를 "뱀이 저를 속여 제가 먹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문책을 받는 순간 재빠르게 책임전가 하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보다 아담은 하와가, 하와는 뱀이 원인 제공자이고 책임이 크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나쁜 본성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도 일면은 아담 하와에게 책임전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남의 눈에 티'란 '남의 허물'을 의미합니다. 이를 보게 되거든 그것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은 어떠한지 살펴본다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수 있습니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타산지석 가이공옥(他山之石 可以攻玉)-다른 산의 못생긴 돌멩이라도 옥을 갈 수 있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더 설명을 하자면 "다른 산의 거칠고 나쁜 돌이라도 내 옥을 다듬는데 소용이 된다."라는 뜻이므로 '돌'은 '소인'을, '옥'은 '대인'을 비유하여 "소인의 하찮은 언행조차 군자가 마음을 수양하고 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함, 실패, 허물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전 10:10,11)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41절과 42절 말씀은 "누구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금지명령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남의 허물을 보게 되었을 때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를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신중해야 하며 성도답게 처신해야 합니다.

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과 정확히 부합하는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② 허물을 지적해야 할 경우에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감안해야 합니다.

③ 당사자에게만 말해 주어야 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알려야 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 널리 알려야 합니다.

④ 허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신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⑥ 타인의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기 성찰을 하고 자신에게 있는 허물이 발견되면 회개해야 합니다.

43절,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본질상의 변화가 생깁니다. 죄 사함 받아 의롭게 되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변화가 생깁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에 의해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본질적 변화를 로마서 11장에는 나무를 접붙임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 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롬 11:17,23)

이방인은 돌감람나무 가지입니다. 유대인은 원래 참감람나무 가지였는데 메시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하여 꺾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본질이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됩니다. 그러니 참감람나무에서 꺾인 가지이면 접붙임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것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건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원리가 접붙임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접붙임은 본질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매우 적절합니다. 접붙임의 원리에 관하여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 밭에 심어 둔다고 참감람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참감람나무에 동여매어 두어도 참감람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참감람나무에 주는 거름을 주고 참감람나무처럼 전지를 해 준다고 하여도 참감람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독실한 신앙을 가진 부모 슬하에서 자라난다고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교인으로 등록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다고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예배에 참석하여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새 생명을 받으려면 접붙임 되어야 합니다. 자연계에서의 접붙임을 하려면 돌감람나무를 적당한 높이에서 잘라버립니다. 이 나무가 접붙일 때 바탕이 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 참감람 열매 맺는 나무의 가지나 눈을 잘라서 옮겨 붙입니다. 그리하면 돌감람나무의 뿌리가 끌어 올리는 진액이 접붙여 놓은 참감람 열매 맺는 순에 공급되어 참감람 나무가 되고 참감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에서의 접붙임은 자연계에서의 접붙임 원리와 반대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바울은 농사꾼이 아니고 성경학자이며 천막을 만드는 기능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 '접붙임에 대하여 무지한 탓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성경은 기록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을 자연계의 접붙임과 반대로 기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연적 출생이 아니고 신비적 출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접붙임 받아서 좋은 나무로 본질이 바뀌면 다시는 돌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반면에 본질이 바뀌지 아니한 돌나무는 아무리 잘 가꾸어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돌감람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정성을 다해 가꾸면 돌감람 열매가 많이 열릴 뿐이고 참감람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참감람 열매를 맺히게 하려면 접붙임을 하여 나무의 본질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접붙임 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에게는 확실한 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본질적인 변화를 입은 우리에게 지키도록 요구되는 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계명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계명들을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한편 자신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범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계명을 어긴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여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세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표방한 단체에 가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접붙임 된 나무에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한다 해도 돌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다만 좋은 열매가 적게 맺든지 열매의 크기가 작을 뿐입니다. 접붙임이 된 배나무에서 기대한 만큼의 크고 많은 열매가 열리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돌배가 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돌배가 열린다면 그 나무는 접붙임 된 나무가 아니고 야생대로의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접붙임 된 좋은 나무가 돌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하고 찔레가 포도를 맺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본질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화론, 공산주의, 종교다원주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과는 신앙적인 일에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일에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이며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지 아니한 자입니다.